

서거 60주년 기념 특별강연 자료

우장춘 박사의 생애



2019. 10. 24.

원우회 고문 **홍영표**

1. 성장 과정

▣ 탄생과 소년기

- 출생 : 1898(부모 : 망명정객 우범선, 일본여인 사카이 나카(酒井 仲))
- 출생지 : 일본 동경
 - * 부친은 일본에 망명 중이던 정치범 고영근에게 암살됨(1903.11.24.)
- 모친은 행상으로 생활을 영위하다 장춘을 고아원에 맡김(1년 6개월)

▣ 학창 시절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히로시마현 구래시(吳市)에서 마침
- 대학 : 교토(京都)제국대학 공학부 지망. 학비를 지원하던 조선총독부는 도쿄(東京)제국대학 농학부 실과(實科)를 지망하도록 권유
 - * 명성황후 시해의 공범인 일본은 비밀유지를 위해 약간의 경제적 지원
- 당시의 농학부 실과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초급대학과 같은 학제

2. 사회생활의 출발

▣ 대학 졸업 후의 연구생활

-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실과를 평범하게 졸업
- 농림성 서원(西原) 농사시험장 취직
 - * 직급은 기수(技手, 한국의 연구사와 동일)
- 나팔꽃 유전 연구 수행
- 1924년 사이타마현에 신설된 고노수(鴻巣)시험지에서 본격 연구생활
- 연구과제는 1)나팔꽃의 돌연변이의 발현에 관한 연구.
 - 2)나팔꽃의 송엽형(松葉型)의 상변성(常變性)과 돌연변이에 대하여
 - 3)나팔꽃에 있어서 반수체식물(半數體植物)의 발생 등
- 연구에 전심전력 → 박사학위 논문 완성(1930.5.) → 화재로 소실



청년 우장춘

2. 사회생활의 출발

▣ *Brassica* 속의 연구

- 나팔꽃 연구자료 소실의 아픔을 잊고 배추속(*Brassica*) 연구 착수
- *Brassica* 속에 관한 연구 6년만인 1936년 학위 논문 완성
 - * 논문제목은 "*Brassica* 속에 있어서 유채의 실험적 합성 및 특유의 수정 양식과 관련한 게놈 분석"
- 논문의 요지는 *Brassica campestris*, *B. oleracea*, *B. napus* 등을 교잡한 결과, 기존의 식물과 같은 것도 나오고 전연 다른 식물도 나오는 정당성을 Genome 분석으로 입증
 - * 새로운 종 (種)은 진화뿐만 아니라 합성으로도 생긴다는 엄청난 논문.
이 논문은 통상적으로는 "종의 합성"이라고 함
- 이 논문으로 도쿄제국대학 농학부에서 농학 박사학위 취득

2. 사회생활의 출발

- ☆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기사(技師, 한국의 연구관급)로 승진 안됨
- ☆ 기사 승진과 동시에 사직한다는 조건부로 시험장을 사퇴(1937.8)

▣ 민간 종묘회사 시기

○ 우박사가 선택한 직장은 다끼이(瀧井)종묘사의 육종 농장장

- * 당시 나팔꽃과 페츄니아 연구를 많이 했던 우박사는 꽃으로 유명한 사카다(坂田) 종묘사의 연구농장장으로 갈 것으로 예상.
- * 실제 사카다 종묘사는 우박사의 겹꽃 페츄니아 연구를 이용, 100% 겹꽃이 피는 All Double Petunia를 육성하여(대가 없이) 일약 세계적 종묘사로 비약.
- * 우박사가 다끼이를 택한 것은 후에 조국에서 일할 수 있는 가상에 대비한 것

○ 다끼이 종묘사는 고급 저택과 연봉 3천엔이라는 파격적 대우 약속

2. 사회생활의 출발

▣ 다끼이 종묘사에서의 활동

- 자가불화합성(自家不和合性)을 이용한 십자화과작물의 F1종자 생산
 - * 즉 자가불화합성(自家不和合性)과 웅성불임(雄性不稔), 잡종강세(雜種強勢)를 이용해서 값싸고 우량한 종자의 대량 생산 목적.
- 화훼류의 육종 및 채종
- '육종과 원예'라는 잡지 발간
 - * 많은 유전육종학자들의 연구결과 게재. 학술지 수준의 잡지
- 연수생 제도 운영 : 육종기술 후계자 양성
 - * 한국 견습생들만 별도로 모아서 특별 교육을 실시
- 일본의 패망(1945년)과 동시에 다끼이 종묘사 퇴직
- 귀국한 1950년까지 교토의 조호지라는 절터를 빌려 영농

3. 귀국의 동기

- ★ 일반적으로 우박사의 귀국 동기는 1) 국적이 한국이며, 2) 출생은 한·일 혼혈이고, 3) 형제 중 장남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봉사하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가르침, 4) 한국의 환국 요청 등으로 알려짐
- ★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 민족 말살정책 실시

- 일제는 창시 개명, 신사 참배, 징집, 황국신민 선서, 일어상용 등 강요(1940)
우박사의 일본호적에는 수나가 나가하루(須長 長春)라고 되어 있으나, 그의 모든 발표논문에는 禹長春 이라 한자로 적고, 영문만 Nagaharu U. 라고 기재.

▣ 우박사의 호적

- 우박사가 환국하려 할 때, 세관에서 일본 국적 이라며 제지하자, 환국추진 위원회에 연락하여 '서울 중구 저동 2가 71번지'에 있는 자기호적을 2, 3부 발급받아 송부 요망. 그 등본을 제시하고 환국.

3. 귀국의 동기

▣ 다끼이 에서의 연구사업

- 귀국 후 한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예습이라는 생각
 - 자가불화합성을 이용한 십자화과 작물의 F1종자 생산,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잡종강세 이용, 화훼류의 육종과 채종기술, 연수생 제도에 의한 육종기술 후계자 양성, 농업관계 잡지발간으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

▣ 예리한 시대 감각

- 1941년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일본 친구 기하라 박사에게…
 - ‘일본 사람은 피점령 국민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일본의 패전 예감.

3. 귀국의 동기

▣ 아버지 우범선에 대한 생각

- 존경심으로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묘소 참배
- 우범선에 대한 기사 스크랩
 - “조선궁정 비화, 필자 村松梢風” 즉 명성왕후 시해에 관한 기사를 스크랩하고 표지에는 직접 ‘조선궁정 비화(朝鮮宮庭祕話)’라고 쓰고 도장까지 찍어..

朝鮮宮廷秘話



村松梢風

張嬪憂世を忍ぶ事

京城の南大門外には小さな民衆が「ヂャ〜」と密集してゐた。表面の國道に沿つた所には店屋もあるが、大抵は労働者や貧しい旅人相手の食ひ物屋だとか、鍛冶屋だとか、ガラクタ道具を少しばかり並べた古道具屋だとか、さういつた家ばかりで破な店鋪はない。それでも人通りだけは繁く、朝早くから城門（野梁）を賣りに行く百姓だの、肥車だの、ギイ札を牛車だの、「エイホッ、エイホッ」と掛け声をし行く荷物搬

朝鮮はいまや冷たい戦争から熱い戦争のつぼのなかへ投込まれ、血なまぐさい國內相組の朝鮮民族の悲しい運命となつた。だが、この血で血を洗う悲しい運命は今日にはじまつたことではなく、日韓合併前後における歴史事件など肉親相殺する様相は誰を擁うものがある。清國、日本、ロシアと三勢力が相錯し、その背景のもとに美しい王妃、國王、攝政が互いに秘術をつくつての陰謀、術策、まことにメロドラマそのものであつた。外部的勢力を織込んだ國內相争う朝鮮民族の形勢こそ、東洋のバルカンであり、朝鮮の宿命であるかもしれない。こゝに李朝末期の宮廷秘話を提供する所以である。

(刀ト金貨は銀貨に代)

御珠の裏のやうに返がつて、下水の設備がないから雨水が控置食膳なく何処でも勝手に溢れ、鼻をうつ悪臭が充満する中に、地に伏さつたやうに低い藪ふき屋敷の、四角の窓で固めた小屋が、壁から壁を接して建っている。此處は労働者や日傭小夫、稀に行人人だの者などとも混つてゐるが、食でないといふだけの最下層の民衆の集合地であつた。其の中でもとりわけ狭まつた片隅の一軒の民家に、もう二年越しに離れ住んでゐる母子があつた。母子のほかには可成り年輩つたお婆さんの下

朝鮮宮廷秘話



村松梢風

4. 우박사의 인간성

★ 우박사는 무뚝뚝하고, 웃음도 재미도 없으나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
대가(大家)라고 빼기지 않고, 허름한 작업복, 흰 고무신의 촌부

▣ 처우 개선

- 연구생들의 어려움을 듣고 연구자의 자세를 먼저 가르치고 처우 개선
 - 연구생 요구사항 : 봉급 인상, 일요일 휴무, 영어 교습, 공동 취사로 생활고 완화
 - 우박사의 회답 : 1) 등록금도 내지 않고, 보수는 받으며 공부.
2) 휴일을 쉬려면 식물에게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쉬어라.
3) 나는 가는 사람 쫓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往者不追 來者不拒 (우박사의 좌우명)
 - 후에 봉급 인상, 공동 취사, 영어 교습 시행 승락

환영식장의 우장춘



4. 우박사의 인간성

▣ 고진 감래

○ 야간에도 연구생들을 격려

- 새벽 2시에 보일러에 석탄을 넣고 있는데, 오셔서 하신 말씀...
‘고진감래(苦盡甘來)야’
- ‘나는 시험장에서 한 달 동안 밤새도록 눈에 물을 뺐다 뺐다 한적이 있네’



동래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간부 직원

4. 우박사의 인간성

▣ 연구의 성패는 정직과 예민한 관찰

○ 서양란 덴드로비움 분실 사건

- 분실된 한 화분의 자리를 적당히 메웠으나, 단번에 알아채는 우박사
- 연구소란 입산수도하는 곳과 같으며 연구의 성패는 정직과 예민한 관찰에 달려 있다는 진실을 깨우쳐 줌.



연구소에서의 우장춘

4. 우박사의 인간성

▣ 위트와 유머

- 당시 민주당의 거물 신익희 선생이 찾아와,
 - 요즈음은 한국말을 좀 하십니까?
 - 배우고는 있으나 잘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까지 말하면 더 시끄럽지 않겠는지요.

중앙원예기술원을 방문한 UN사령관
하지 중장과 안내하는 우장춘(1954)



4. 우박사의 인간성

▣ 오락을 좋아하는 서민

○ 우박사는 화투, 마작, 바둑 등을 즐김

- 여러가지 화투놀이의 승패를 확률적으로 따져보는 호기심의 소유자
 -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고이' 라는 새로운 화투놀이를 직원들에게 전수
- 오늘날의 '고스톱' ?



동래 중앙원예기술원 화훼온실(1956)

4. 우박사의 인간성

▣ 자증자애

○ 농림부 장관 직 제안도 거절

- 이시영 부통령이 우박사에게 농림부 장관 임명 의사 타진
- 대학의 학장 직, 저서 발간, 대학 출강 등의 제안을 모두 거절
- 지금 내가 할 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채소종자의 자급자족 임



김해시험장 배추 순도검정(1958)

4. 한국원예에 대한 공헌

▣ 채소종자의 자급자족

- 채소종자 생산을 위한 원원종, 원종, 시판종 생산체계 확립
 - 연간 3000석의 채소종자 자급자족. 일부는 수출
- 자가불화합성과 웅성불임을 이용한 F1종자의 생산기초 확립
 - 결구배추와 양파는 양산 단계 돌입

▣ 청정채소 및 단경기 채소 생산기술 확립

- 토양검사로 기생충 방지 → 청정채소 생산
- 대관령을 이용한 여름 단경기 생산 생산기초 확립



연구소 10주년 기념 근속직원 표창

4. 한국원예에 대한 공헌

▣ 감귤류 생산적지 선정

- 감귤 생산적지로 제주도를 선정. 신품종 도입 및 적품종 선발
 - 감귤 생산의 기반을 확립
- 유자 생산의 적지로 진도, 완도, 남해, 거제도 등을 선정

▣ 무병 건전종서의 생산

- 감자 생산성 저하가 오염된 바이러스에 기인
 - 바이러스 감염원인 진딧물 발생이 적은
고랭지를 이용하여 종서를 생산하고
- 농가는 종서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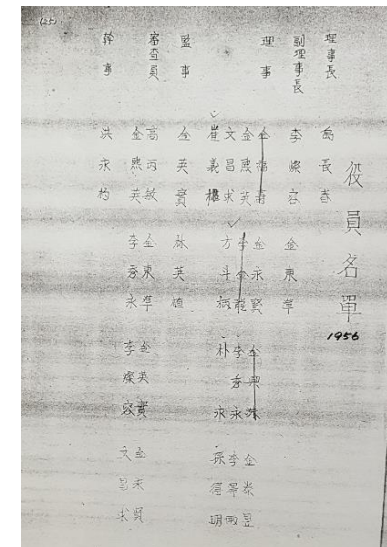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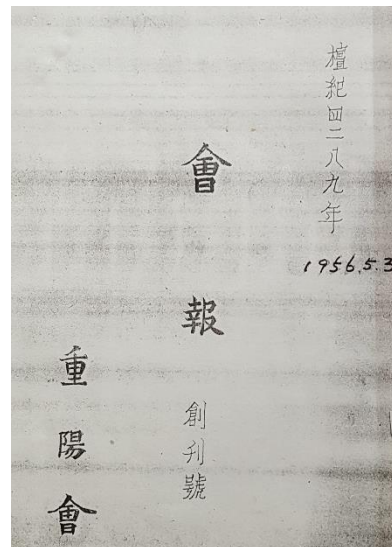


원예시험장 개장 1주년 기념(1958)

4. 한국원예에 대한 공헌

▣ 화훼산업 육성

- 광복 후의 화훼산업은 제로 상태. ‘밥도 못 먹는 이 판에 꽃이 다 무엇이냐!’
- 미래를 내다보고 원예시험장 내에 화훼과를 설치
 - 국민의 건전한 정서생활 함양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
 - 2018 화훼 생산액 = 5,385억원, 수출액 = 1,869만\$
한때 생산액 1조원, 수출 1억\$ 돌파. 청탁금지법 이후 급락
 - ‘중양회’를 조직, 회장을 역임하며 관상국화 보급 및 용어 제정



묘비에 새겨진 시문

불우와 고난 속에 진리를 토파내어
종자합성 새 학설을 세계에 외칠 적에
잠잠턴 학문의 바다 물결 한번 치니라

온갖 채소종자 우리 힘으로 길러 내어
겨레를 위하시니 그 공로 얼마던고
빛나는 문화포장을 웃고 받고 가니라

흙에서 살던 인생 흙으로 돌아가매
그 정신 뿌리되어 짝트고 가지 뻗어
이 나라 과학의 동산에 백화만발하리라

- 이 은 상 -

